

| 신 간 안 내 |

이 난은 매월 발간되는 새책소식을 독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불황의 출판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술과 아내 그리고 예술



음악가 및 음악평론가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직을 수행하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청년기에 작가를 지망한 문학애호가로서, 무엇보다 술과 바둑을 좋아하는 일상인으로서 저자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진솔하고 담백하게 쓴 글을 모은 이강숙의 산문집이다.

이 강 숙 지음 / 창작과비평사 발행

앙리 포시용의 형태의 삶



미술비평가 및 미술학도들에게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 이 책은 20세기 전반의 프랑스 미술사학자이자 미술이론가로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프랑스 형식주의 미술사학파의 거장 앙리 포시용, 미술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경험과 연구와 사색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문서이다.

앙리 포시용 지음 / 강 영 주 옮김 / 학교재 발행

덧없는 인간과 예술



말로는 이 책에서 다양한 명저들과 작가들의 정신 세계를 예술 세계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많은 예술작품과 예술가들의 근본적인 정신을 탐구하고 있다. 중세 시대의 종료행렬로부터 현대의 TV에 대한 열광에 이르기까지, 연극과 소설 장르가 이루어낸 위대한 예술적 성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20세기 예술 세계를 여행하고 또 고대 헬레니즘 문화까지 탐험하게 된다.

앙드레 말로 지음 / 유 복 열 옮김 / 푸른숲 발행

청춘 · 길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일회용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는 사진의 풍경, 이 책은 20년 이상 터울이 지는 두 남자가 여행의 길동무가 되어 세계 곳곳을 순례하며, 자연과 인생에 대해 나눈 교감의 기록이며 세계의 중심에서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곳들의 풍광과 만난 내면의 인상들을 담아낸다.

베르나르 포콩 · 앙토냉 포토스키 지음
백 선 희 옮김 / 마음산책 발행

하늘빛 사람들



프랑스 문학의 살아있는 신화 장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와, 그의 모로코인 아내 제미아가 함께 쓴 사막 기행집. '꿈의 완전무결한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 아름다운 탐색의 과정이, 모래와 바람과 사람의 풍광이, 프랑스의 유명한 사진작가 브뤼노 바르베의 뛰어난 사진들과 함께 그려진다.

J.M.G. 르 클레지오 · 제미아 르 클레지오 지음
/ 이 세 욱 옮김 / 문학동네 발행

아이들을 위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



이 책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삶과 정신, 그리고 그의 창조적인 업적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한다. 또한 레오나르도의 뛰어난 그림과 연습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그의 삶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실어놓았다.

제니스 허버트 지음 / 석 은 영 옮김 / 승산 발행

토담집



이 책은 한 개인의 소소한 일기와 같은 책이다. 시골에 묻혀 살면서, 우리의 어른세대가 그랬듯이 직접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생각한 것들을 모은 글모음이다. 또 저자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었던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서 손수 집짓기 위한 용기와 친절함 안내서가 되줄 것이다.

이 화 중 지음 / 소명 발행

books

한국생활사박물관



이 책은 한국생활사박물관 중 세번째(고구려생활관)에 속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면서도 개방적이었던 고구려인의 생활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 고구려 생활상의 입체적 재현과 벽화를 생생하게 복원했으며 현장감 넘치는 사진, 고구려의 별자리와 신화, 고구려사 인식의 대전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지음 / 사계절 발행

힐링소사이어티



한국인 최초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화제의 책, 물질문명의 한계와 정신적인 공허함에 싸여있던 서구인들에게 한국의 정신문화를 통해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깨달음의 실천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깨달음의 혁명'을 예감케 하는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지 이승헌 지음 / 한문화 발행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책은 일선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부부문제를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이다.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나 결혼을 앞둔 사람, 잘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아론 벡 지음 / 계석봉 옮김 / 학지사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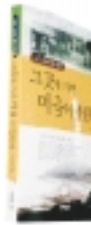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우리사회의 일제잔재 문제를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온 학자이자 이번에 민족문제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저자는, 추상적 서술만으로 설명해 오던 내용을 생활속의 현장감각으로 접근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한상범 지음 / 푸른세상 발행

그곳에 가면 마음이 열린다



이 책은 남도문화론, 11개의 테마 답사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도문화론은 전라도 기질을 형성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11개의 테마뒤에는 답사지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부록에는 남도 교통관광안내지도와 여행정보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남성숙 지음 / 성하 발행

서울문학기행



한국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27인의 문인과 그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 곳을 서울을 중심으로 찾아가 본 문학 답사기, 이 책은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의 대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가와 살았던 집, 시비, 문학비, 작품배경 등을 소개한 문학기행서이다.

장태동 지음 / 미래M&B 발행

하얀사랑



이 책은 총 30편의 동화로 꾸며져 있다. 성인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인물답게 정채봉을 느낄 수 있는 투명한 정서와 맑은 언어의 속삭임이 돋보인다.

머리말을 장식하는 '입속에서 나온 동백꽃 세송이'는 마음 속에 사랑의 말을 간직한 채 죽어간 어린 소녀의 동백꽃 같은 순수한 사랑이 눈물나게 한다. 이 책은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불러오고 진정 소중한 것들에 대해 사색하게 하는, 그래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이 읽어도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채봉 지음 / 샘터 발행

증기기관차 미카



넘치는 서정과 투명한 감성으로 주목받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 안도현의 어른을 위한 동화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세상의 속도에 밀려 소멸해가는 영혼들 사이의 쓸쓸한 우정을 그려 견잡을 수 없는 속도에 어지럼증을 느끼는 현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안 도 현 지음 / 최 성 환 그림 / 문학동네 발행

문학동네 시집



김진경의 <갈문리의 아이들>은 폭압의 80년대를 뒤흔들었던 젊은 영혼으로 거처온 시인의 시 정신의 산물이자 동시에 절망의 깊이만큼 치열했던 삶의 육성이다. 김형영 <침묵의 무늬>는 서정주의 초기시가 지닌 원시적 야수성과 박목월의 초기시가 지닌 절제의 미학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독특한 효과를 낸다. 육체에 갇힌 개별자의 비극과 천상에서 지상으로 추방당한 존재의 비애를 압축되고 정련된 언어로 노래한다. <내 기억의 청동술>에서 김철식은 아픈 기억을 추스리며 '비루한 생이 주는 고통과 죽음의 유혹 사이에서' 아프다. 그 아픔을 그저 아파할 뿐인 시인의 상처는 그래서 더욱 슬프다. 박철의 다섯번째 시집 <영진설비 돈갓다 주가>에는 꾸밈없으면서 결이 고운 언어로 주변의 소외된 것, 사라져가는 것들에 따뜻한 시선, 평이함 속에 숨어있는 단단함을 느낄 수 있다. 암울했던 60년대, 그 시대를 이십대의 젊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홍신선의 폐허의식, 환멸감은 가만히 머물러야 할 정적인 대상을 꿈틀거리며 유동하는 동적인 이미지, 보이지 않는 정황을 가시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켜 나타낸다(서벽당집).

김 진 경 외 지음 / 문학동네 발행

벼랑에서 살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에 차등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 동시에 김홍희의 사진은 작가의 글이 머문 흔적을 따라가면서 작가가 사는 방과 집의 여러 곳과 주변 동네를 투시하듯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조 은 지음 / 마음산책 발행

담배 피우는 아줌마



이 책은 신나는 아줌마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의 기획, 글쓰기 등 전방위적 활동 영역을 갖고 있는 여자 이숙경이 쓴 칼럼 모음집이다. '일주일에 세 번 밥해 먹기' '정말 결혼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갔을까?'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내 어머니는 누구인가' 등

이 숙 경 지음 / 동녘 발행

이청준 문학전집



한국 근현대사의 현실을 치열한 정신으로 꿰뚫어본 작가 이청준의 소설 궤적을 추적하고 그 위에서 우리 소설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청준 문학전집'. 이 두권의 책은 윤희와 인연에 관한 이야기이며 비애를 노래하고 영혼의 자유를 희구한 장편소설이다.

이 청 준 지음 / 열림원 발행

사랑을 되찾아 준 도둑



현재까지 프랑스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작가 라퐁텐느, 이 책은 랑퐁텐느의 우화집 12권의 전집에서 재미있고 교훈적인 것 총 60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들로 엮여졌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라 퐁텐느 지음 / 청어 발행

books

꽃, 강에 지다



이 책은 '상상력 보다 역사의 기록에 의해 작품을 완성했다. 논개라는 한 여인의 삶을 그려가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조선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작가는 동시에 논개와 같이 역사적 진실이 사적으로 나타났음에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편파하고 무시하는 역사는 없는가, 되짚어 본다.

최 낙 건 지음 / 다우 발행

끝빠이, 이상



90년대 신세대 작가군 중 가장 이치적인 글 쓰기를 선보이고 있는 이 책은 '이상'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고증을 바탕으로, 이상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실제 기록과 그의 작품, 이상에 대한 연구서를 인용하며 허구와 사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의 실험적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김 연 수 지음 / 문학동네 발행

순정



판소리의 사실과도 같이 거침없이 쏟아져나오는 생생한 입담과 능란한 이야기 솜씨는 이제 성석제 문학 영토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듯. 이 책은 도둑 중의 도둑 이치도라는 사내의 일대기를 시침 뚝 떼고 의문스럽게 들려주며 읽는 이의 폭소를 자아낸다.

성 석 제 지음 / 문학동네 발행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



45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개교기념일'을 포함, 근자에 발표한 중·단편 여덟편이 실려 있는 이 책은 무료함, 존재증명을 해 보일 길 없는 삶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인물들의 내면의 풍경을 그려낸다.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 '물위에서' '길' '칼에 찢린 자국' '바위 위에 높다' '개교기념일' 등.

김 인 속 지음 / 문학동네 발행

어두운 밤 나는 적막한 집을 나섰다



현대 독일문학의 대표작가, 페터 한트케의 새 장편소설. 잘츠부르크 근방, 잊혀진 도시 탁스함에 중년의 약사가 있다. 건조한 일상 속에 그가 유일하게 몰두하는 것은 버섯과 중세 서사시, 어느날 숲속에서 머리에 심한 타격을 입고 실어증에 걸린 그는 레스토랑에서 만난 두 남자와 길을 떠나게 된다.

페터 한트케 지음 / 윤 시 향 옮김 / 문학동네 발행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전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작가, 영혼을 뒤흔드는 소설의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의 최신작. 10대 후반에 수차례 정신병원에 격리수용된 적이 있는 작가의 여성적 자아가 담긴 이 소설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광기와 생에 대한 열정을 다룬 작품이다.

파울로 코엘료 지음 / 이상 해 옮김 / 문학동네 발행

왕비의 이혼



서구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자유롭고 정교한 상상력, 인간 심리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성으로 일본 독서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작가, 사토 겐이치의 역사소설. 나오키상 수상작품. 15세기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와 왕비 잔 드 프랑스의 이혼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사토 겐이치 지음 / 이 정 환 옮김 / 열림원 발행

* 이 지면은 여러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들로 꾸밈니다.